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소화기·화재감지기 보급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 활동에 나섰다. (사진) 최근 호남대 소방행정학과(학과장 노선균)에 따르면 최근 소방행정학과 대학생전문의소방대(대장 강웅일) 및 학생회(학생회장 주성진) 등이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서 겨울철 연탄 나눔 봉사활동 및 소화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광산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화재 발생 건수(2020년 274건, 2021년 238건, 2022년 현

재 218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모두 73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화재 취약지역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활동을 병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고속도로 인근 농촌마을 봉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인섭)는 최근 보성군 보성을 대아리 모령마을에서 '고속도로 인근 농촌마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6월 담양군 창평면 성덕마을, 9월 함평군 대동면 외덕마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마련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도로공사 보성지사,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마을길 야간 교통안전표지 '차선오펝'을 부착, 전동차와 경운기 등 소형 이동수단에

는 후부 반사지 부착, 트럭 등 대형 이동수단에는 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활동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펼쳤다. 이밖에 마을 환경 정비활동과 전남자원봉사센터의 차량을 이용한 이동세탁 서비스, 교통안전카드 70개 후원 등도 병행했다. 고속도로 인근 농촌마을 봉사활동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소유토지의 수용 등 희생을 겪은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예술위, 예술인 주택지원 사업 '임대 주택 라운드테이블' 성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예술인 지원주택 사업을 소개하고 예술인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탐구하기 위해 개최된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 주택 라운드테이블'이 성료됐다. (사진) 예술인 지원주택은 예술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협력하여 공급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예술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흥태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회로 1부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 소개'와 2부 '문화예술인 주거공간 조성 정책 제안'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방식의 예술인 주택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주택공급 및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토부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강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매입부 차장이, '문화예술분야 임대주택 수요조사 결과 및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주택 공모 안내'를 박우영 예술위 전략개발팀장이 발표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 지오초, 경기도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굿잡' 진행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대한학교인 지오초등학교(교장 유기웅)가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굿잡(good job)'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1~4학년 재학생 17명이 참여해 과거와 현재의 직업을 탐구하고, 체험해보는 시간 위주로 구성됐다. <화순 지오초 제공>

해양에너지, 광산소방서 하남 119안전센터와 소방훈련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김형순)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에서 광산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한국의 들레길', and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3일(음 10월 10일 庚申)
36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48년생 다들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0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사에 편승하라. 72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84년생 오해 받고 있을 소지가 크니 매사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96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3, 92
37년생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49년생 범의 등을 타는 기세로 정진하게 된다. 61년생 인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73년생 기술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85년생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97년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6, 76
38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50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라. 62년생 잘 표시해 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라. 86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98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4, 52
39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겁수하라. 51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63년생 낯선 이의 상면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75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87년생 결 가지는 차차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99년생 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9
40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52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64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쯤 손해로 이어진다. 76년생 원인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자. 88년생 집착을 떨쳐버린다면 폭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00년생 넉넉하게 준비해 두라. 행운의 숫자 : 41, 59
41년생 전진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53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65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미리 쟁거 필요는 없다. 77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열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89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뒷말이 없겠다. 01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7, 64
42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54년생 막연하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다. 66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라. 78년생 효험 있는 약은 입에 쓰고 도용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90년생 일시적인 정제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02년생 결실이 앞지른다. 행운의 숫자 : 33, 96
43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5년생 자를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67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자. 79년생 꺼려할 수 있으니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91년생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03년생 벌어진 틈을 메우지 않으면 이탈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3, 57
4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니라. 56년생 기초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68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던 문제가 있다. 80년생 막힌 물고기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92년생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04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8, 65
33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45년생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바로 회탈 수 있다. 57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보라. 69년생 취득하느냐 상실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81년생 생애행은 잃고 겁먹지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93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3, 71
34년생 소문으로 일컬어지던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6년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니라. 58년생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 70년생 강중에 우산이 뒤집힐까 봐서 안전함을 쓰며 나아가는 양태이다. 82년생 우회하는 편이 더 쉽다. 94년생 꼭 알려야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55
35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삼사일인 하는 것이 좋다. 47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59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71년생 분위기나 결모습에 현혹된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83년생 배판다면 반드시 복 받으리라. 95년생에 타게 기다릴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4, 82